

• 목 차 •

- 2 포커스  
위암환자의 보조항암치료와 TS  
호소 발현 상관 없다.
- 3 선인재 칼럼  
우리의 성격 탓?
- 4 인제탐험  
신앙이야기
- 8 잊을 수 없는 환자  
성숙한 삶의 의미를 일깨워 준 분
- 9 우리 병원 어떨습니까  
앞은 커다란 것이 더 많았던 시간들
- 10 진료교실 I  
만성피로증후군, 적절한운동,  
공정적인 사고, 취미활동이 중요
- 11 의료장비 소개  
PET
- 12 나의 연구 나의 테마  
국내 최고의 신경 발생 연구실로
- 13 AMICNEWS
- 18 진료교실 II  
망막질환-당뇨망막병증, 날파리증  
이란?
- 21 나도 매니아  
나의 건강비결은 뭘까?
- 22 잘못된 건강상식  
어둠 홍채는 치료할 수 없다?
- 23 아주대병원 100% 활용하기  
편안한 병원생활을 위한  
아주대병원 편의시설
- 24 건강 O&A  
-다지증  
-점
- 26 응급처치, 어떤편 어떻게  
해외여행자를 위한 안전식사요령
- 27 진료시간표

## 학습 및 발달증진클리닉 개설

- 4월17일 개소식 가져 -



▲ 학습 및 발달증진클리닉을 이끌어 갈 오은영 교수(왼쪽에서 네번째)와 의료진

아주대병원이 지난 4월17일 학습 및 발달증진클리닉을 개설하였습니다.

학습 및 발달증진클리닉은 학습 및 공동생활에 장애를 갖고 있어 부모가 생각하기에는 머리가 나쁜 것 같지 않은데 학업이 부진하거나 숙제를 제대로 못하거나 학습이나 과제수행, 놀이 등에 오래 집중하지 못하고, 준비물, 숙제 등을 자주 잃어버리고, 외부의 사소한 자극에도 생각이 쉽게 흩어지고 주의가 산만해지는 행동을 보이는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클리닉의 책임을 맡고 있는 오은영 교수는 개원 당시 경기도 유일의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로, 진료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오랫동안 진료하는 등 환자 사랑이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나 학습 및 공동생활에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들을 둔 부모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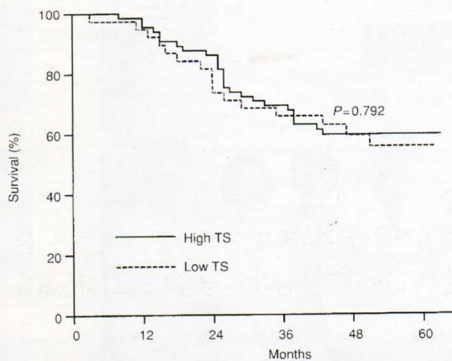
이번 학습 및 발달증진클리닉은 오은영 교수를 중심으로 아동정신 전문의, 심리학자, 언어치료사 등 아동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공동으로 ADS(주의력 진단시스템), 집중력 훈련시스템과 함께 ▲ 주의력 증진 프로그램 ▲ 사고능력 증진 프로그램 ▲ 자신감 증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료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학습 및 발달증진클리닉 ☎ 031-219-5814〉





# 위암 환자의 보조항암치료와 TS 효소 고발현 상관 없다



▲ 본원에서 국소적으로 진행된 위암으로 근치적 위암 절제수술 및 보조항암화학요법을 시행 받은 103명 환자의 생존곡선.

4년 생존율이 TS가 높게 발현된 군(59.6%)과 낮은 발현을 보인 군(59.3%) 사이에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다(High TS : TS 고발현 군, Low TS : TS 저발현 군).

## 최

근 위암 치료에 있어 thymidylate synthase(TS) 효소가 위암의 항암화학요법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5-fluorouracil(5-FU)에 대한 억제내성에 관여하며 또한 불량 예후인자로 작용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

혈액·종양내과 최진혁 교수에 따르면 국소 진행성 위암(병기 IB-IV)으로 근치적 위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5-FU와 doxorubicin을 근간으로 하는 항암화학요법을 시행 받은 103명의 환자 중 TS 효소가 높게 나타난 63%의 환자군과 적게 나타났던 나머지 환자군을 대상으로 4년 생존율을 관찰한 결과, TS 효소가 높게 나타났던 환자의 59.6%, 적게 나타났던 환자의 59.3%가 생존한 것으로 나타나 두 환자군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즉, TS의 고발현과 위암 절제수술 후 5-FU 및 doxorubicin를 근간으로 한 보조항암요법을 시행 받은 국소 진행성 위암환자의 예후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전이성 위암에서 TS가 5-FU에 대한 억제내성에 관여하며, 국소 진행성 위암에서는 5-FU 및 mitomycin-C 보조항암화학요법을 받은 환자에서 TS가 높게 나타났을 경우 예후가 불량했다는 기존의 보고들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TS 효소의 고발현이 5-FU 항암요법 치료에 있어 반드시 불량 예후 인자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에 최진혁 교수는 『앞으로 TS 효소가 5-FU 항암치료에서 있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즉 왜 어떤 경우에는 불량 예후인자로 작용하며, 또 어떤 경우에는 상관없이 계속 연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2001년 1월 British Journal of Cancer에 실렸다.

### Key Word

#### 보조항암화학요법이란?

대부분의 암에서 국소적으로 진행된 경우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을 시행하더라도 적지 않은 수의 암세포가 몸 안에 잔존하게 되며, 많은 환자들에서 잔존 암세포들이 증식하여 암 재발을 일으키게 된다. 보조 항암화학요법은 수술 후 항암제를 투여하여 잔존 암세포들을 제거함으로써 암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